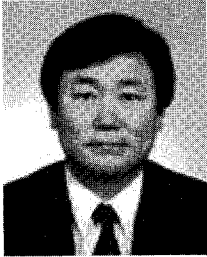




특집

OPP필름업계



홍성욱
(주)서통 상무이사

새로운 천년에 대한 뜨거운 기대와 새로운 가능성을 갈망하는 희망으로 지구촌이 뜨겁게 달구어져 시작 되었던 2000년 경진년도 벌써 저물고 진정한 21세기를 여는 신사년 새해가 다시 밝았습니다. 용어는 달라도 2000년대를 맞이하는 느낌은 누구나 남달랐을 것입니다. '일천구백'이라는 숫자와 '이천'이라는 숫자 사이의 세월의 간격은 그 어느때와 다르없지만 '새로운'이라는 용어가 주는 의미는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는 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벽찬 감동을 안겨주어 막연한 기대감에 들뜨게 하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2000년 한 해는 다사다난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할 정도로 변동성이 심했던 한 해였습니다. 외환위기라는 국가건립 이후 초유의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수 많은 기업이 파산하였고, 많은 노동자들이 실직사태를 겪는 등 과거 그 어느때 보다도 힘든 한 해였습니다. 2001년 전망 또한 결코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집단 이기주의에 의한 의료대란, 금융대란, 지속되는 금융시장의 불안감 증폭 등 최근 마스크를 장식하고 있는 많은 기사들은 2001년 새해에도 지속적으로 이슈화 되어 우리 경제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금융권 구조조정이 가시화 되는 상반기 국내 금융시장의 환경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의 극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금융경색의 국면은 기업의 경영환경을 극도로 불투명하게 만들고 이는 소비자들의 소비감소로 이어져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OPP·CPP 필름업계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올 해 국내 OPP·CPP필름업계는 작년에 이어 올 해에도 경기침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므로 당분간 침체국면에 지속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내외의 전반적인 산업동향이 구조적인 침체국면에 접어들게 됨에 따라 필름, 지류 등 포장업체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며 이는 국내 관련업체간 과잉경쟁 및 출혈수출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포장업계의 채산성을 더욱 악화 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 뒤에 기회'가 있습니다. 경제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원가절감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며, 핵심역량의 비축과 신기술 개발로 경쟁력 있는 포장산업 분야로의 도약을 위해 준비해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소비자들의 요구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더욱 까다로워 질 것입니다.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대에 불황을 모르는 산업체질을 위해서 우리 포장업계는 더욱 전문화 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춰야 합니

OPP필름업계

다. 지금은 새로운 수요와 가치를 창출하여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공존공영할 수 있는 산업구조로의 변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국내에서의 과다한 출혈경쟁은 더 이상 그 어느누구도 만족 시킬 수 없습니다. 국내기업간의 불필요한 과잉경쟁은 업계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되며 이는 다시 외국자본으로 부터의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어 제2, 제3의 IMF를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우리 포장업계는 좀 더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많은 정보를 교류하고 새로운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포장의 선진화와 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다 해야 할 기로에 서 있으며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 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은 국가간의 거대한 장벽을 무너뜨리고 거센 물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외국의 우수한 포장업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호시탐탐 국내시장을 엿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관행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변화의 물결을 함께 맞이해야 비로소 무한경쟁 시대에 외국의 공룡기업군과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포장업계는 수직적인 공급/수요의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포장문화를 개척하고 포장산업의 세계화를 추구하는 사명감을 공유한 횡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제품의 가치를 한 차원 높이는 산업분야의 핵심 일원으로서 21세기 새로운 포장개념의 도입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전 포장인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고민하는 산업 공동체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여 봅니다. ☐

제4회 한용교포장인상 수상자 공모

포장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그리고 자긍심을 갖게 해 줄 한용교포장인상이 이번해를 맞이하여 수상자를 공모합니다.

2000년 포장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포장인 가운데 연구개발, 품질관리, 경영, 영업, 포장장학금 등 5개 분야 7명을 선정, 시상하게 될 제4회 한용교포장인상이 포장인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사) 한국포장협회